

녹슬고 금가고... 흥물된 인천어시장 '이전 시급'

〈연안 부두〉

상인들 이전 최적지로 연안항 꼽지만 '항만구역'이라 공개입찰 매각 불가피 수산물 판매·유통 우선권 확보 위해 지역 안팎서 '어항구 지정' 목소리 커

"인천의 대표 어시장이라면서 건물이 너무 낡아 손님들이 떠나갈 판입니다."

25일 오전 10시경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파란색 지붕 위 곳곳에는 색이 벗겨져 있고, '인천종합어시장'이라고 크게 쓰여 있는 흰색 벽에는 금이 있었다. 옆 건물인 연두색 벽은 부서지면서 회색 시멘트가 보이기도 했다. 녹슨 간판들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을 가득 메운 녹색 철근이 전선, 네온 등과 뒤엉켜 바깥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등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다.

시장을 찾은 정해풍씨(59)는 "이곳은 주변에 낡은 건물밖에 없어 어시장에 와도 볼거리가 없고, 주변에 곰팡이 쓴 건물들도 빼곡해 오기가 싫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천장에 있는 철근들을 볼 때마다 괜히 불안하다"며 "이곳이 연안부두에 있는 어시장인지, 폐건물인지 잘 모르겠다"고 허를 찔렀다.

인천 연안부두의 대표적인 수산시장으로 꼽히는 인천종합어시장이 낡고 열악한 환경 탓에 흥물 취급을 받고 있다.

인천종합어시장은 다른 지역 주민들도 자주 찾

는 어시장인 만큼 시가 나서 확대·이전 등을 통한 정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은 현재 시장이 너무 낡고 열악해 이전이 시급하다고 판단, 오는 2025년 6월까지 인천항만공사(IPA)가 중구 항동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 공사를 마치는 연안항 인근을 이전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곳이 아니면 다른 대책을 찾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전 추진 역시 난관에 부딪혔다. 연안항 인근은 항만구역이라 인천항만공사(IPA)가 공개입찰로 매각하겠다는 지점을 정해뒀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부족한 조합의 사상상 민간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이전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지역 안팎에서는 시가 이곳을 지역 어항구 등으로 지정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가 이곳을 지역 어항구로 지정하면 어촌·어항법 제26조 등에 따라 부지 매입 과정에서 수산물 판매·유통시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정해권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은 "IPA가 매립하는 곳을 어항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개발업자들이 부지를 사들일 것"이라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IPA 및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종합어시장 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종합어시장이 건물 노후로 인해 영업 환경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전 관련해서는 IPA 및 관련 부서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귀빈기자



파업 예고 현수막 경기도 전체 버스 1만648대의 89%인 9천516대의 파업 여부가 결정될 최종 조정회의가 열린 25일 오후 수원역 버스정류장에 파업 예고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주현기자

"가스폭발 사고 현장 탐험하려고" 통제구역 침입한 중국인 3명 입건

가스폭발로 출입이 통제된 빌라에 복면을 쓰고 무단으로 침입한 미성년자 중국인들이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군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2시7분께 정왕동

의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다. 이들은 각각 복면을 쓰고 출입이 통제된 빌라 건물 1층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복면을 쓴 남성 3명이 한 빌라에 들어갔다"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빌라 내부를 수색했다. 이후 1층에서 인기척을 느낀 경찰은 내부에 있던 A군 등을 전원 검거했다.

해당 빌라는 전날 오후 4시53분께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가구원 전원이 집을 비운 상태였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내부를 탐험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흥=김형수기자

과학학술단체 수능 개편안 반발

〈2028학년도〉

"일반과학 대신 통합과학만 응시할 땐 국가 경쟁력 약화... 전면 재검토해야"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과학교육 관련 학술단체들은 2028년 수능부터 일반과학 대신 통합과학만 응시하게 되면 대학 수험능력 저하와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수능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과학교육학회 등 7개 과학교육 학술단체 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이번 개편안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인성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통합과학을 수능 기초과목으로 지정하고 일반과학도 추가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구성된 통합과학만 수능에서 보게 되면 학생들이 통합과

학 이수 후 진로 대신 내신 성적에 따라 과목을 택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학생들의 과학지식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어 다양한 과학 분야를 선택하는 기회를 줄여 학생들이 과학 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줄이고, 결국 과학기술 진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제도의 변화가 학생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대한수학회가 "정부의 수능 개편안이 현안대로 시행될 경우 이과 계열 대학의 교육 기반이 붕괴하고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에선 미적분Ⅱ와 기하 등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현수진기자

장애인구역에 상습 불법주차... 특수학교 교장 중징계

시교육청 "감사 토대 비위 확인... 정직 처분"

인천지역의 한 특수학교 교장이 교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평구의 한 특수학교 교장 A씨가 지난 2월 시교육청 감사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교직원들에게 음식 대접을 강요하거나 무단 결근을 했다는 등의 비위 신고

를 접수,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A씨가 교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감사가 이뤄지자 교직원들을 체육관으로 부른 뒤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단속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토대로 A씨의 비위를 확인해 정직 처분을 요청했고 재단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박주연기자

시끄럽다며... 고교생들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 검거

하교하던 고등학생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경 포천시 신읍동에서 고등학생들을 향해 둔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휘두른 둔기에 고등학생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생들이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포천=이종현기자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비유에스(주) 후원을 통해 창단한 월드비전 꿈나무 축구단은 축구에 꿈을 갖고 있는 지역 내 취약가정 초등학생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축구단 아동 모집

- 대상 : 지역 내 초등학교 3~5학년
- 제공 : 주 2회 축구훈련, 축구용품 등 무상지원
- 문의 :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 (031-245-3004)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 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글로벌 NGO입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2698007 431 8015 (예금주) 월드비전

후원 | 경기일보